

경영저널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COVER STORY / 김주영 영주시장

정책조명 / 제2새마을운동 선진 국가 건설 '뉴 스타트'

포커스 리딩 / '공룡 역외 유통업체' 지역 진출 가속화

파워인터뷰 / 김현수 계명대 창업지원단장

기업탐방 / 대백, 향토 대표 백화점 '우뚛'

지자체는지금 / 달서구 소규모 동(洞) 통합

청호평론 / 학술연구용역은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재테크 /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중소형 물량 중심 회복세 기대



»» Photo Essay 경포호 앞에 서면...

하늘빛 영롱한 푸른빛 호수
반짝반짝 은구슬 물결, 바람타고 저만치 밀려갔다 밀려온다.
은빛 햇살 담은 맑디맑은 호수, 경포호는 역시 장관이구나!



글/이하나 기자 · 사진제공/강릉시

경영저널 www.managementjournal.co.kr 통권 제25호

발행인 서은주 | 편집인 조종성 | 등록번호 경북라06394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박홍식, 장승욱 | 취재부장 서기대 | 취재기자 장경태, 홍순대, 손지강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경포호 앞에 서면
- 04 _ News wide / 지역 중소기업 뉴스
- 06 _ Economic trend / 대구·경북 석유제품 가격 급등
- 08 _ Cover story / 김주영 영주시장
- 12 _ 정책조명 / 제2새마을운동 선진 국가 건설 '뉴 스타트'
- 14 _ 전문가 기고 / 대·중소기업, 아름다운 동반자되어야
- 16 _ Focus reading / '공공 역외 유통업체 지역 진출 가속화
- 20 _ 기업탐방 / 대백, 향토 대표 백화점 '우뚝'
- 22 _ Success story / 기술혁신형 바이오기업 'KB친환경
- 24 _ 청호평론 / 학술연구용역은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 25 _ Power interview / 김현수 계명대 창업지원단장
- 26 _ 투게더 피플 / 어려운 이웃 위한 '참사랑' 실천
- 27 _ Travel sketch / 영주 무섬마을
- 28 _ 재테크 /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중소형 물량 중심 회복세 기대
- 30 _ Life style / 쿨비즈룩으로 패셔니스타 되자
- 32 _ 지자체는 지금 / 달서구 소규모 동(洞) 통합
- 33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촌 / 마늘은 '썩'·양파는 '뚝'
- 34 _ 저탄소 녹색성장 특별 기고 / 에너지 절약 작은 실천이 중요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Political & Economic

중기청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사업 강화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관으로 1천409개 기업과 233개 대학·연구기관을 선정하고 1천51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보유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주도의 R&D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부문에 따라 최고 1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연구개발에는 219개 대학에서 1천368명의 교수와 14개 연구기관에서 41명의 책임연구원이 참가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접목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 5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500개를 선정해 3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을 업종별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기술보급형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6개 중소기업조합에 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금오공과대학교가 지역사업 27건과 전국사업 1건에 선정돼 총 16억1천828만원을 지원받고, 경일대학교가 지역사업 12건에 6억6천800만원, 경북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도 5억6천794만원과 4억5천872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외에 영남이공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등도 지원금을 받는다.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산정시 업체 의견 반영

대구지방조달청은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가격산정시, 관련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이를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 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시설자재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은 자체 조사·공표한 공사용 자재 1만 1천여 품목에 대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자재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향후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에 수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금액에 적용되는 시설자재(1만 1천614품목)가격을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해 왔지만 원자재 급·등락, 환율변동 등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부 발주 공사비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여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심사 간소화 및 고의적 물량수정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해야하는 기존의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찰자는 저가심사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일부업체의 경우 낙찰 목적으로 심사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해온 것으로 조달청은 파악하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심사가 보다 투명·공정해지고 중소기업의 입찰 경쟁력도 높아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LED 핵심소재 생산 거점 우뚝

대구가 국내 LED 핵심소재 생산 거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LED(주)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주)합작회사인 에스에스엘엠(주)은 7월 중으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성서5차산업단지에서 본사 사옥과 생산공장 신축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스에스엘엠(주)은 이에 앞서 최근 대구를 거점으로 LED 핵심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법인등록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에스에스엘엠(주)은 오는 10월 말까지 성서5차산업단

지 내 11만719㎡의 부지에 LED 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하고, 연내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파이어 웨이퍼는 LED산업의 핵심 소재이며, LED는 사파이어 잉곳을 얇게 자른 웨이퍼 위에 발광층을 형성해 만들어진다.

사파이어 웨이퍼의 안정적인 공급이 LED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셈이다.

한편 태양광 모듈 전문 생산업체인 외국인투자기업 (주)쥬리솔라도 대구에 생산라인을 조성한다.

쥬리솔라는 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달성2차산업단지 외국인투자 지역에 2만㎡ 규모로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 3개동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기간 27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합작투자 업체인 독일의 J.V.G Thoma GmbH를 통해 초기 6년간 생산 제품 전량을 유럽과 미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은 2012년 900억원에서 2013년 1천900원, 2015년엔 3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쥬리솔라 측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

된 쥬리솔라는 태양광 장비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J.V.G

Thoma GmbH와 (주)동국ENC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태양광 모듈 전문 생산업체다.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달성2차산업단지에 공장이 설립되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쥬리솔라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우수 해외기업 및 국내 대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모듈 시장은 빠른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은 35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30% 이상씩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만 5조5천억원에 달하며, 2006~2010년까지 최근 5년간 150% 이상 초고속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항TP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선정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 바이오정보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스마트 코스메틱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경북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항TP 바이오정보지원센터는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등 총 6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사·도 간의 소모적 경쟁을 탈피하고, 광역차원의 인적·물적 기반을 공유해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16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3년간 국비 1천644억원 등 총 4천7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포항TP 바이오정보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도, 경기도와 연계해 생체 전달 기능이 향상된 400억원 규모의 천연물 유래 화장품 소재개발을 추진하고, (주)메디웨이코리아, (주)뉴앤뉴 등 도내 11개 대학·기업·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포항TP는 경북도와 강원도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에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약용식물군을 산업화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식품, 천연물의 약품을 개발하는 광역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포항TP 측은 “첨단장비 등을 활용해 뇌신경계 질환, 염증 질환, 암 등에 효과적인 천연물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순대 산업전문기자

대구·경북 석유제품 가격 급등

국제유가 강세속 연일 고공행진
개별공시지가는 2년 연속 상승



대구와 경북의 개별공시지가가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반적인 국제 유가 강세 흐름 속에 대구·경북의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영일만항이 개장 2년여만에 컨테이너 물동량 5만TEU를 돌파했으며, 대구지역 상장법인의 평직원 임금수준이 전국 꼴찌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2년 연속 상승

대구·경북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와 대구시, 경북도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각각 2.99%와 2.83%씩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2.57%)을 웃돌았다. 대구와 경북은 2010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1.69%, 2.54%씩 올라, 2년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구는 동구가 5.83%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으로 달성군 4.38%, 달성구

2.94%, 남구 2.14%, 수성구 2.01% 등이 뒤를 이었다. 동구와 달성군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신서혁신도시 및 이시아폴리스 건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중구 동성로2가174번지 대구백화점으로 m²당 2천6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m²당 30만원 오른 것이다. 또 땅값이 가장 싼 토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 135-1번지로 m²당 166원에 그쳤다. 경북은 시·군별로 경주시가 4.12%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봉화군은 1.13%로 가장 적게 올랐다. 경북지역 지가 상승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추진,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청 이전지 확정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m²당 1천50만원 수준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으로 나타났고,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 61-3 입야로 m²당 81원에 불과했다.

대구의 전체 필지는 44만6천802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00조6천466억2천400만원에 달했다. 경북은 전체 412만8천여필지에 114조6천794억8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석유제품 가격 급등

대구·경북의 기름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기준 대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 당 1천913.41원을 기록해 14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준 고급 휘발유도 ℓ 당 2천96.77원을, 경유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역시 ℓ 당 1천735.73원까지 치솟는 등 전반적인 가격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지역의 석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준으로 경북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 당 1천911.65원을,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1천731.01원까지 급등했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6월15일(ℓ 당 1천906.94원)부터 11일째 상승한 것이며, 경유 역시 지난 6월1일(ℓ 당 1천732.31원)이후 최고치를 새로 갈아치운 것이다.

기름값은 조만간 큰 폭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지난 4월7일부터 시작된 정유업체의 ℓ 당 기름값 100원 이하 조치가 7월6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원유 수입관세를 내리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 관세가 현행 3%에서 0%로 낮아지면 1개월 기준으로 1천억원 가량 세수(稅收) 감소가 불가피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 당 21원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된 원유를 정제 과정을 거쳐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평균 2주 정도 걸리며, 이를 감안할 때 국내 기름값에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상장법인 임금수준 쫓겨권

대구지역 상장법인의 급여수준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쫓겨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최근 지난해 기준으로 평직원 보수를 공개한 1천493개 상장업체의 주소지별(본사) 임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지역 40개 상장사의 평직원(1만4천788명) 평균 연봉은 3천927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다만 평균 근속연수는 10.4년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5천408만원)을 크게 밑돌았지만 근무 기간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10.4년이다. 경북지역 상장법인(43개) 또한 평직원(3만3천823명) 평균 임금 수준이 5천295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평균 근속연수는 14.2년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시·도별로는 울산지역 상장법인(22개)의 급여 및 고용 안정 수준이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울산지역 상장법인(평직원 3만7천293명)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는 각각 6천645만원과 16.8년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상장사 381개·평직원 29만4천961명)는 6천135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충북지역 38개 상장사(평직원 9천287명)의 평균 임금은 3천383만원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충북지역 상장법인은 이와 함께 평직원의 근속연수(4.9년) 역시 4.8년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5만TEU 돌파

포항 영일만항이 개장 2년여만에 컨테이너 물동량 5만TEU를 돌파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개장이후 지난 6월15일 기준으로 2년여간 누계 5만3천449TEU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장 1년째인 지난해 물동량(1만6천443TEU)보다 325%나 급증한 것이다.

화물별로는 수출입화물이 2만6천460TEU를 기록해 1년전(7천336TEU)보다 360% 증가했으며, 이 기간 연안화물도 296% 늘어난 2만6천989TEU로 확대됐다. 물동량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쌍용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수출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연안 피더선(중소형 컨테이너선)으로 수송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스크랩(scrap) 등 부원료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항항만청은 현재 영일만항에서 극동러시아, 북중국, 서일본을 연결하는 6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중국, 일본에 추가항로를 개설하는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Port-Sales)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지강 통계전문기자



김주영 영주시장

출생 1948년 영주
학력 영광고·고려대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경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월드컵조직위 인력물자국장
기획예산처 이사관
서울특별시 경영기획단장
민선4기 영주시장
수상 국무총리 우수공무원 표창
홍조근정훈장

민선 4기에 이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주영 영주시장(63)이 지난 7월1일자로 민선 5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시장은 지난 6월27일 영주시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임기내에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와 영주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영주를 어떻게 풍요로운 도시로 도약시킬지 그의 견해와 구상을 들어봤다.

“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만들 터 ”

일문일답

Q 영주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은?

A 영주는 지난 1970년대 중반까지 만하더라도 물류 요충지로서 연초제조창과 영주철도청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철도 기반의 '유통도시'로 성장, 발전을 지속해왔습니다. 풍기인삼 등 특산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백선 개통 이후 철도수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영주경제'는 산업화의 뒷전에 밀려나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민선 4기에 이어 지난해 7월 민선 5기 영주시장에 취임한 이후 추락한 '영주경제'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市政) 최우선 목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현재 농공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 7곳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자산업단지 5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습니까.

'영주경제'가 최근들어 조금씩 되살아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를 갖추고 있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민선 4기 4년간 185개 기업에서 1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데 이어 민선 5기 들어서도 이미 14개 기업에서 5천억원 규모로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장법인 OCI머티리얼즈(주)에서 총 3회에 걸쳐 6천300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노벨리스코리아(주)에서 2천300억원, 에어프로텍스코리아에서 510억원, 일우공영에서 200여억원 규모로 투자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Q 명품(名品) 관광도시 육성 프로젝트가 있다면?

A 21세기 관광산업은 '덜뚱 없는 공장'이란 표현처럼 부가가치가 매우 큰 친환경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머물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관광도시 육성사업은 최근들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삼판서 고택을 복원한데 이어 선비문화수련원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영주가 간직한 전통문화와 선비문화를 꽃피우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무섬마을 정비사업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과 죽령옛길 복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선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장해 운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위기를 맞은 판타시온 리조트는 현재 올여름 재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백산 자락에 추진되고 있는 풍기온천휴양단지 역시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보고 즐기며 머무르는 체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전초기지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육성 프로젝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트파크를 조성한 데 이어 한국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영주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성공적인 축제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 영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 개발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내놓은 선비 음식인 무섬골동반과 토속음식인 순흥전통떡, 약선요리, 인삼칠황계를 접한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그 맛에 반해 큰 찬사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주고 있습니다. 영주는 이미 세계적 관광도시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주를 찾는 관광객만 연간 600만명을 넘어 7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영주의 장밋빛 미래는 이처럼 매우 밝습니다.

Q 살기 좋은 영주 조성위한 비전이 있다면?

A 지구촌 시대 가속화 속에 우리는 지금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어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키워드가 ‘규모’였다면 지금은 ‘질(質)’이 우선 시되고 또 ‘산업’에서 ‘문화’로, ‘자본’에서 ‘지식’으로, ‘국가’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관(官)’에서 ‘민(民)’으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계기적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선 시대 흐름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 ‘원칙을 존중하는 시장’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New)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전통문화와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희망의 도시 영주를 만드는데 한 톨의 밑알이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Q 민선 5기 1주년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압초

A 와 맞닥뜨릴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뜻하지 않은 구제역을 만나는 것은 크나큰 시련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낙담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년은 또한 영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실세 없이 달려온 한해로 평가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성과는 실로 매우 컸습니다.

예컨대 노벨리스코리아(주)에서 2천억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고 압연공장 증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대표적 기업유치 성과로 꼽힙니다. 이뿐아니라 (주)OCI 머티리얼즈 또한 1천724억원을 신규 투자해 ‘NF35공장’을 증설하기로 하는 등 취임이후 1년간 5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효과는 물론 5천1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1976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온 ‘영주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크나큰 수확으로 평가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중앙선 복선전철화, 영주댐 건설,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최근 30여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영주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인구증가 원년이 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로 간주됩니다. 상복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글로벌녹색경영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해로 여겨집니다.

Q 임기 내 역점 추진 사업은?

A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을 작정입니다. 민선5기 4년간 일자리 1만6천개를 창출해 영주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을 복안입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도시 조성'을 통해 그동안 항상 한결 같이 보내준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풍부한 일자리 기반의 기업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역외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살기좋은 영주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반드시 열어젖히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테마를 모티브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풍기온천 휴양단지개발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광산업 1등 도시' 영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특구에 걸맞게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대상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해나가겠습니다. 학교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민이 대접받는 '부자농촌' 비전도 제시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특성화 농업을 기반으로 오는 2014년까지 역대 농가 2천가구를 육성하기로 목표를 세워 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 인삼박물관,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다목적 농산물 공판장 개설 등 농업기반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

리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 도시 조성'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영주의 미래'는 분명 매우 밝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4년 영주는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시정 운영 방향을 서민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고장', '격조 높은 문화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市政)에 대해선?

A 권위주의를 버리고 시민 품으로 다가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장(市長)인 저가 몸소 시민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참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영주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은 영주의 미래를 먹여 살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소백산과 태백산이 빛어낸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녹색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녹색도시' 영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펼쳐온 시정은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정(旅程)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변함없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늘 동행(同行)하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대답=조종성 편집국장
정리=서기대 취재부장



제2새마을운동 선진 국가 건설 ‘뉴 스타트’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온 새마을 운동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200만 새마을 가족의 축적된 경험과 결집된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21세기 대한민국의 뉴(New) 비전인 선진 조국 건설을 위한 희망 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뉴새마을운동'은 GREEN Korea(녹색 새마을), SMART Korea(나라품격 높이기), HAPPY Korea(살맛나는 공동체), GLOBAL Korea(세계화 새마을) 운동 등 4대 중점 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에다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창조(Create)의 가치를 더해 역동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범국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녹색 새마을(GREEN Korea)운동

'GREEN Korea' 운동은 저탄소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범국민 녹색 생활 실천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녹색국가' 실현은 시대적,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게 녹색 새마을운동이다. 정부 역시 '녹색국가'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액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기로 하는 등 '녹색국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도 이에 발맞춰 지난 2007년 7월 녹색 새마을운동 추진을 선포하고 녹색생활화 실천과 4대강·하천 살리기, 지구 온난화 방지 실천운동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린(Green)마을 성공모형을 조기 창출해 유형별 표준모형을 보급하고, 생활속 녹색혁명 및 자발적 주민운동으로 추진해 녹색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에서도 녹색 새마을운동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새마을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6월13일 도원동 도로변에 여름꽃을 심어 '녹색도시' 조성에 힘을 보탠 것은 물론 동구 지저동새마을부녀회 회원들도 같은 달 중순 팔공산 수태골에서 쓰레기되거져요기 운동 등 녹색 새마을 캠페인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나라품격 높이기(SMART Korea)운동

격조높은 시민, 품위있는 나라를 가꾸는 것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 운동은 △유·무형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는 것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 △기초 질서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기본 예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생활 속 작은 실천운동을 통해 나라 품격을 높여겠다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과제별 세부 사업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격조높은 마을 만들기, 지역문화 가꾸기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나라품격 높이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열기가 무르익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월 인원 3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산사거리 등지에서 피켓과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해 '그린 라이프 스마트 코리아 캠페인'을 실시,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구에서도 같은 달 동구, 수성구일대에서 '한줄 서기 및 우측통행 캠페인', '칭찬 릴레이 운동' 등 관련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큰 관심을 얻었다.

살맛나는 공동체(HAPPY Korea)운동

'HAPPY Korea' 운동은 살맛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범국민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살맛나는 행복 공동체' 조성에 두고 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사회 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고, 단순 구호성, 그리고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결연 등

을 통해 사회 약자층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도·농교류 및 안전지킴이 운동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홀몸 어르신 집 고쳐주기, 사회적 기업 설립,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도자 교육,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역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도자봉성면협의회와 봉성면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6월10일 지역내 홀몸어르신에게 손수 장만한 반찬을 지원했으며, 대구 동구민간사회안전망동구협의회 회원들도 최근 효목1동, 안심1동, 신암1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세계화 새마을(GLOBAL Korea)운동

'GLOBAL Korea' 운동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을 이겨낸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알려주는 운동으로 전수되고 있다. 해당 국가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 등을 통해 각종 노하우를 가르쳐주거나 직접 저개발 국가를 찾아가 환경개선 사업이나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전수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지역사회에서도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모색하는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경북도는 글로벌새마을포럼·한국발전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4월19, 20일 이틀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1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세계 9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해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집단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총 3개 분과 6개 세션에 한국, 중국, 일본, 라오스 등의 전문가 50여명이 참가해 주제발표와 기조연설,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인 20일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의 세미나 강연에 이어 글로벌새마을포럼 최외출 회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정부 역시 '제2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을 대상으로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운동은 연간 135천억원 규모의 농어촌 분야 포괄보조사업을 이와 연계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 장려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에 1만개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3년까지 3천개 마을을 '특화마을'로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체험·관광, 전통문화, 음식, 축제, 특화산업 등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해 차별화하고, 색깔있는 마을 육성을 통해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장경태 정책전문기자

대·중소기업, 아름다운 동반자되어야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총괄부장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주제가 있다. 바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물론이고 언론, 학계에서 연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와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사자인 대기업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하고 자의반타의반(?)으로 각종 대책과 실천약속을 앞다투어 발표하였다. 외견상으로는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자리잡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동반성장 문제'가 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는 양극화가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원인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서 기인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애써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장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뒤늦게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입찰참여 등의 명분을 내세워 협력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내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슈퍼마켓, 재래시장의 앞마당까지 대기업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하고, 전형적인 소상공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무용품 등 취급시장에 대기업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회사가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는 것을 비롯하여 서점, 자판기운영, 자동차수리 등 돈이 된다면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침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수가 405개에서 617개로 50%나 급증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모 대기업은 그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공정거래를 지속하는 등 소위 '무늬만 동반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외국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불공정거래 문제나 동반성장 같은 얘기는 거의 들을 수 없다. 왜일까? 그것은 중소기업들을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외국과 국내 대기업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외국 대기업은 물량을 발주할 때 몇 개월치를 주문하여 협력중소기업이 계획성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해 주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굳이 다른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34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기업은 4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부지원이나 혜택, 대기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협력중소기업이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시장에서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 동반성장 문화가 반드시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단순한 갑을(甲乙)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의 근본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밝힌 것처럼 대기업 총수부터 우선 변해야 한다. 정부 또한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고 공정거래기반을 조성하여 동반성장이 산업현장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적 활동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대기업 납품에만 안주하지 말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춘 스몰 사이언츠(Small Giants)가 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만성적인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다.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세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공존·발전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시작은 바로 '동반성장'이다. 그리고 얼마나 큰 동반성장의 열매를 맺는가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춤, 왕이 되는 마법!

답답한 일상 속에 누구나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 이 일탈은 축제를 통해 그 구현이 가능하고 축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특히 '탈'과 '탈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왕의 탈을 쓰면 왕이 되고,
왕비의 탈을 쓰면 왕비가 되는 마법 같은 축제의 일상이 존재한다.
역사 속에서 안동을 찾았던 수많은 왕들이 안동에서 새로운 천기를 마련하고 때로는 편안함과 따뜻함, 휴식을 통한 세속적인
시간을 선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축제를 찾은 모든 이들이 왕이 되어 안동의 접빈객(接賓客)을 경험하는 신비한 마법의 축제,
일상의 일탈을 통해 평생 기억에 남을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1

안동시내일원(탈춤공원, 하회마을)

www.maskdance.com

2011.9.30(금) > 10.9(일)



제40회 안동민속축제

‘공룡 역외 유통업체’ 지역 진출 가속화

천문학적 자금 역외유출...지역사회 환원은 인색



공룡자본을 앞세운 역외 유통업체들의 대구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대구경제'가 시름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본사에 보내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층 몰락 등 서민경제 근간을 흔들며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역외 유통업체들은 그러나 기업가윤의 사회 환원에는 하나같이 인색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외 유통업체 지배력 강화

대구가 역외 백화점업체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지난 2003년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오픈하면서 본격화된 역외 백화점업체들의 지역 진출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이랜드그룹의 유통사업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38년 역사의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지역 유통시장에서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현대백화점이 대구점을 오픈하고, 국내 대표 유통업체인 신세계도 동대구 복합환센터 개발 사업자에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2014년 '대구진출' 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 국내 백화점 '빅3' 인 현대·신세계·롯데백화점 모두 대구에서 영업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유통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대구지역 유통시장은 역외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진출에 따라 일대지각 변동에 휩싸이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현대백화점 진출에 따라 그동안 대구백화점과 롯데백화점간 2강 구도로 전개돼온 지역 백화점시장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현대백화점 오픈에 따라 대구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매출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 모두 매출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살까기식 출혈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 브랜드 입점을 두고서는 업체간 사활을 건 총력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품 브랜드의 경우 통상 인구 250만명 규모인 대구의 유통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백화점 2곳 정도만 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문이다.

백화점의 얼굴인 명품 브랜드가 특정 업체에 몰릴 경우 후순위에 밀리는 업체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한 치 양보없는 '유치 경쟁' 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신세계백화점의 '대구진출' 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명품 브랜드 경쟁력이 국내 최고 수준인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014년 12월까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기반으로 대구점을 입점할 예정이다.

향토 백화점 설자리 없다

이 처럼 역외 백화점업체들의 지역 유통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서 향토백화점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백화점 사업에서 고전해온 화성산업이 유통사업 부문인 동아백화점을 2천680억원에 이랜드그룹에 매각하면서 대구백화점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편이다.

역외 백화점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과 대구백화점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구지역의 백화점 매출은 1조1조2천737억2천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롯데백화점은 대구점과 상인점 등 영업점 2곳으로 지난 한해 총 6천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시장도 별반 차이는 없다. 역외업체들이 완전 잠식한 상황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역외 대형마트업체들은 지난해만 1조6천574억원 규모의 대구지역 대형마트 시장을 독식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미 향토 아울렛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백화점시장과 연관성이 큰 향토 아울렛업체에서는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등 전전공황하고 있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모두 의류판매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국내 아울렛업체를 대표하는 롯데, 이랜드그룹 등이 지역에서 아울렛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벼랑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가득하다.

올브랜 한 관계자는 "매머드급 쇼핑시설인 롯데몰이 최근 인근지역에 입점한 이후부터 매출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받고 있다"면서 "역외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지역 진출 속에 시장 환경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고 밝혔다.

역외유통업체 사업영역 다각화

역외 유통업체들은 최근들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기존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위주에서 벗어나 아울렛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진출에 따라 최근 지역 여론이 얼어붙고 있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면서 이런 현상은 한층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표적 유통 공룡업체인 '롯데' 를 빼트릴 수 없다. 롯데그룹의 유통사업계열인 롯데쇼핑은 지난해 7월 동구 율하역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6층, 영업면적 3만500㎡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쇼핑몰 롯데쇼핑플라자를 오픈한데 이어 올 4월에는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신개념 쇼핑시설 롯데몰(Lotte Mall)을 개점하는 등 지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편의점과 시네마사업, SSM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



고 있다. 다른 브랜드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구에서 SSM사업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마트 역시 최근들어 '대구 비산점'을 매장 리뉴얼을 통해 창고형 할인매장 개점에 나서면서 동네 슈퍼에 이어 지역 중소형 도매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인식

거대자본을 앞세운 유통 공룡들의 지역 진출이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 역의 유출은 물론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 층 몰락 등 서민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서다.

대구시가 역외업체에 대한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따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통 공룡'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사업에는 하나같이 인색한 형편이다.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역외유통업체들의 매출액과 지역기여도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층 확인해진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에 진출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19곳

과 백화점, 쇼핑센터, 아울렛 등 역외 유통업체 25곳은 지난 한해만 대구에서 총 2조5천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영업점 1곳당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는 생생내기 수준에 그쳐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내놓은 지역사회 환원자금은 고작 25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금융기관 평균 잔액 역시 2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라고는 봉사단체 운영, 복지시설 물품 지원 등 생생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원 임금과 지방세, 지역 납품업체 결제금 등을 뺀 천문화적인 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 유통정책 오락가락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구시의 유통정책은 낙제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의 경우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오픈하면서 영세 의류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애초 롯데쇼핑 측은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 오픈에 앞서 대구 시와의 양해각서 체결당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에 버



금가는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스타디움 서편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개발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입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3월 설계변경을 통해 대구스타디움 서편 지하 공간에 1만7천600㎡ 규모의 대형 소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줬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을 들여온 면세점과 명품관 입점이 지지부진하자 대형마트 입점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대구시의 유통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상생방안 없다

대구시는 최근 지난 2007년부터 대형마트에 한해 요구해오던 지역 기여계획을 백화점과 쇼핑센터, 아울렛 등 지역에 진출하는 모든 역의 유통업체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연 2회 실시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역의 유통업체들은 현금 판매 매출액을 지역 금융기관에 15일 이상 예치하고 지역 상품 매입비율을 대형마트는 30% 이상, 백화점과 아울렛도 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역 고용창출 비중도 95% 이상 할당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지역기여도에 인색했던 역의 유통업체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전격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기여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선 차별화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의 기대와 달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통업계에서도 비관적 시각이 팽배해 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없다"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100% 충족할 업체가 과연 몇 되겠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대백, 향토 대표 백화점 ‘우뚛’

현금성 자산만 1천500억원·우량기업 면모 구축
대백선교문화재단 설립...기업 이윤 사회 환원도 ‘활발’



공공 자분을 앞세운 역외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지역 진출 속에 대구 유일의 향토백화점 대구백화점(대표이사 구정모)의 지역 밀착형 경영에 관심이 집중된다. 67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백화점은 선진 유통 노하우를 토대로 대구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향토 간판 유통업체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특히 현금성 자산만 1천5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구백화점의 경쟁력과 차별화 마케팅, 성장 동력을 짚어본다.

대구상회 인수 출발점

대구백화점의 모태는 지금으로부터 67년전인 194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인 고(故) 구본홍 회장이 당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66여㎡(20여평) 규모의 대구상회를 인수한 것이 모태가 됐다. ‘친절’과 ‘신용’을 모토로 창업 1년만에 대구상회 인수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유통업계에 서는 전례지고 있다.

1962년 3월 합자회사인 대구백화점을 설립한데 이어 1969년에는 당시 지방에서 가장 큰 현대식 10층 백화점을 신축, 유통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지방 백화점 가운데 최초로 창업과 동시에 경찰제 판매에 나서고 있는 등 선진 유통문화 정착

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누리과 바가지 상행위가 팽배하던 지역 시장에서 경찰제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1973년 4월에는 경북상정 제1호로 ‘경찰제 시범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1977년 9월엔 정부 지정 슈퍼체인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1978년 상공부 제15호로 슈퍼체인 본부회사에 지정된데 이어 1982년에는 국내 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시범유통사업자에 선정돼 산격점, 봉덕점, 내당점 등을 잇따라 오픈한 바 있다. 가격표시제에 이어 정량표시제를 연이어 시행하면서 향토 대표 유통업체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유통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 구본홍 회장은 생전인 1984년 유통업계 최초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988년 9월엔 기업공개도 단행했다. 당시 84억원에 그쳤던 자본금 규모는 기업공개이후 100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투자가들로부터 유망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기업공개는 대구백화점의 도약에 크나큰 밑거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구백화점은 한국능률협회가 1990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100대 우량기업에 8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구백화점은 1993년 9월 프라자점을 개점, 제2의 성장기를 맞았다. 프라자점은 지방 백화점 중 규모가 가장 큰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되면서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수 유통 인재 육성 만전

“기업은 곧 인재다.”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구백화점의 경영원칙이다. 대구백화점은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우수인력 양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펼치고 있다. 전문교육 학점이수제



를 비롯해 산·학 연계 사내대학교 개설, 통신교육 등 직원 대상의 교육 사업에 힘쏟고 있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사업에도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이를 위해 1992년 8월 대백선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의료선교, 장학금 지원 등 교육·청소년·문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본점·프라자점 주력 점포

6월 현재 대구백화점에는 협력업체사원을 포함해 총 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업점은 본점과 프라자점 2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11층, 영업면적 1만9천㎡ 규모로 조성된 본점은 하루 평균 30만명의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 최고 변화가인 동성로 노른자위 땅에 위치하고 있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고객을 주력 타깃층으로 삼고 있다. 신천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자점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입지적 장점을 지닌다.

프라자점은 고품격·고감각 쇼핑공간으로 윈스톱 쇼핑이 가능한 쇼핑 1번지 백화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하 5층, 지상 11층, 영업면적 3만7천㎡에 달하는 매머드급 쇼핑 시설을 자랑한다.

30대에서 40대 후반 고객이 주된 타깃층으로, 50대 고객을 전략 타깃층으로 삼고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우량 유통업체 면모 구축

3월 결산법인인 대구백화점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44%, 25.43% 늘어난 282억7천400만원과 264억1천200만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 기간 매출액 또한 1천791억1천500만원으로 9.25%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7일 기준으로 대구백화점의 시가총액은 1천147억원, 외국인 지분비중은 지역 상장기업 최고 수준인 23.10%로 각각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우량기업이란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구백화점의 현금성자산 규모만 시가총액을 크게 상회하는 1천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현금 유동성만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대홈쇼핑 지분가치(세후 기준)도 4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구백화점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알짜 백화점 업체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단기적 악재로 현대백화점 신규점 진출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영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영업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홍순대 산업전문기자

기술혁신형 바이오기업 'KB친환경'

한약재 기반 사료 첨가제 '다윈21' 출시
친환경 액비 발효 장비 개발로 수익 다각화



◇임휘용 대표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

지난 2007년 설립된 'KB친환경'은 독보적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축산사료 첨가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업당시 1인기업에서 출발한 이 업체는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경북대학교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성과도 거뒀다. 주력제품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친환경 사료 첨가제 '다윈21'. 경북대 동물생명공학과 박영식 교수가 개발해 기술이전을 거쳐 양산되고 있는 이 제품은 허브 및 한약재 등 친환경 물질에서 추출한 생리활성화 물질을 미세 캡슐에 담아 가축의 장(腸)에서 흡수되도록 고안된 게 특징이다.

가축의 장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캡슐을 적용해 출시된 사료 첨가제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은 현재 축산농가들로부터 사용만족도가 높다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100여 축산농가에 납품되고 있다. 지난 7월일부터 가축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항생제 대체 첨가물로 조만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KB친환경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업체가 출시한 친환경 액비발효시설도 관련시

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KB친환경에 따르면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연간 3천256만톤 규모로, 이 중 돼지분뇨는 전체 분뇨의 43.5%인 1천416만톤에 달한다. 현재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처리 등을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하는

한약재 기반의 친환경 사료 첨가제를 개발, 축산농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대구의 바이오기업에 눈길이 쏠린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대구경북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업체인 'KB친환경'. 향토 대표 친환경 바이오업체로 성장한 KB친환경의 주력제품과 비전, 경영목표를 진단한다.

속제를 안고 있다. KB친환경의 주력제품인 '고속액비 발효 교반 장치'는 이런 시장 환경을 고려해 기술개발이 이뤄진 게 특징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시설로 보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설은 포집된 가축분뇨를 미생물과 제오라이트 등 특수 광물로 여과 처리해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97% 이상 정화해 공기중으로 방출시킬수 있도록 제작된 친환경 액비저장시설로 두터운 인지도를 얻고 있다. 여기에서 가축 분뇨를 고속으로 발효해 액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돼 축산농가에서는 비료로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코 앞에 두고 정부 역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액비발효교반 장치' 도입을 장려하면서 향후 시장 수요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시·군별 보조사업으로 시설 도입 농가에 전체 설치 비용 중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원하고 있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있다.

이 시설은 올 들어서만 경주, 안동, 김천 등지에서 6대를 새로 설치한 것은 물론 전남 등 전국의 축산농가들로부터 제품 구입문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창업당시 연간 1억원 수준에 그쳤던 KB친환경의 매출은 지난해 2억원에서 올 상반기(1~6월)에만 5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업체는 나아가 올해 매출 목표를 15억원으로 늘려 잡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주력제품인 '고속액비 발효 교반장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매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가치 극대화 주력

수익사업 다각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B친환경은 내년 상용

화를 목표로 폐비닐 유회장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장치는 농촌 토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비닐을 이용해 등유 등 난방연료로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제품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관련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폐비닐 유회장치의 경우 대형 장비 위주로 생산되면서 대당 30억~100억원을 호가하지만 KB친환경이 개발하고 있는 폐비닐 유회장치는 소형화에 초점을 두면서 대당 가격을 2억원까지 떨어트려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성이 풍부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KB친환경 측은 전망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박차

KB친환경은 7월중으로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R&D 역량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학협력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북대 농업생명공학부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린 이 업체는 업그레이드된 한약재 기반의 친환경 사료 첨가제 개발을 위해 대구한의대 등과도 협력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축산 전문기업으로 육성

이 업체 임휘용(39) 대표가 친환경 축산사료 첨가제 및 축산시설 아이템으로 창업에 나선 것은 회사설립 이전 영업사원시절 때 몸소 느꼈던 다양한 경험이 큰 힘이 됐다.

그는 당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용 공기정화기 등 축산 기자재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많이 목격했다고 한다.

축산농가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창업이후 사업 아이템으로 적용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고, 이를 바탕으로 축척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옮긴 것이 창업 성공의 키워드가 된 것이다.

KB친환경은 국내 대표 친환경 축산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대표는 "기술 집약형 축산사료 첨가제 및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해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주력하겠다"면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학술연구용역은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이 곳곳에서 허점투성이다. 일부 용역은 정부정책과 시책 자문임에도 현안 대책은 없고 뺏기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전문가와 주민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어 부실을 낳는 경우도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학술연구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일원화된 법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지략을 모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격과 인력요건을 포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방지과 예산낭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규정, 왜 필요한가

학술연구는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 분석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성과 객관성은 필수요건이다. 결국 연구수행인력과 연구실적은 필수 검증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무분별한 입찰과 발주로 인해 정책수립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와 감사지적을 피하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공개경쟁과 계약과정의 비위를 중시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역 참가자격요건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입찰참가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부적격업체까지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학술연구용역은 특정요건이 없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되면 참가가 가능하다. 학술연구 특성중 하나인 공익성에 반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전문연구기관이 낙찰받지 못할 경우 부실용역으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처별 연구원 설립이 완화되면서 속빈 강정처럼 서류상 법인만 존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지주법인이 전국 각지에 문어발처럼 법인을 설립해 부실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제라도 이러한 폐단을 막고 법규정을 통해 바로 잡자. 행정안

전부 고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요건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이와 같이 각 시군구는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제한요건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하길 바란다.

학술연구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전문가의 시대가 도래했다. 수준 높은 정책개발과 시책 제학을 수립하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이 세계적인 제조업체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증된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인재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민간연구원들이 산재해 있다. 우리도 전문가와 민간연구원들이 정책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 시장여건 개선과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의 특성상 일반용역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 상근여부와 연구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규정도 필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전문연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앞으로 수많은 지역현안과 정책들이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책은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주민편의나 복지서비스와 직결되는 방침이다. 이런 중차대한 방침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제라도 법규정을 만들어 정부 정책수립을 위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의 학술연구가 정부 정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정부가 나서길 바란다.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김현수 계명대 창업지원단장

올 2월 출범한 계명대 창업지원단이 지역 대표 창업 허브기관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미 대구·경북을 뛰어넘어 영남권 대표 IT, CT, DT분야의 벤처 창업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명대가 지난 2월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 대표 창업보육기관으로 우뚝 선 계명대 창업지원단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숙한 신생아를 키우듯 갓 창업에 뛰어든 신생기업들의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창업지원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계명대 창업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김현수 단장의 열정과 집념, 그리고 목표의식은 남다르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만날 때면 늘 ‘청년창업’으로 취업난을 정면 돌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입주기업과 갖고 있는 정기 간담회를 통해 선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전 직원들에게 개선점을 찾아 지원하도록 수시로 당부하고 있다.

“신생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고 수준의 산·학·간 유기적 협력사업을 토대로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계명대 창업지원단은 현재 산하에 4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업로드쇼와 특강, 현장견학 등 창업행사를 전담하는 창업유전자개발센터, 창업강좌 운영 및 창업동아리 지원을 담당하는 창업교육부,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중심의 기술창업육성부,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가 그것이다.

계명대는 앞서 올 2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2년간 국비 등 총 5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계명대 창업보육단이 중심이 돼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예비창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학이 가진 기술과 인력, 기자재와 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예비기술자 육성사업이 그 하나다.

창업팀 조성을 통해 창업자 발굴에 초점을 두겠다는 창업교육패키지 기반 사업도 큰 줄기를 차지한다.

마지막 하나는 ‘대학자율 프로그램’으로 압축된다.

창업 장학금 지급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창업 특기생을 선발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신생기업에 대해선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김 단장의 의지는 늘 변함이 없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창업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밀알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취업이 어렵다고 낙심만 해선 안 됩니다. 패기, 그리고 젊음과 열정으로 뭉친 청년 예비창업자라면 지금 당장 주저 말고 도전해보세요. 창업시장은 언제나, 그리고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기대 취재부장





어려운 이웃 위한 '참사랑' 실천

한전 대구경북본부 사회봉사단 '더불어 사는 사회 앞장'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지난 2004년 5월 창단한 한국전력공사 사회봉사단의 슬로건이다.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봉사를 지양하고 '이웃사랑', '환경사랑', '문화사랑'을 카테고리로 한국전력공사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창단 당시 263개였던 봉사단(단원수 4천명)은 6월 현재 277개, 단원수는 2만여명 규모로 외형이 커졌다.

이 중 한전 대구·경북본부 사회봉사단에는 2천여명이 참가, 전국 각 지역본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어려운 이웃위한 나눔 사랑 메신저

한전 대구·경북본부 사회봉사단은 사회봉사활동을 확대, 발전해 나가는 동시에 나눔과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역 사업소 34곳에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2개 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 32곳에서 봉사단과 지역 아동센터간 자매결연을 맺고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예컨대 대구·경북본부 사회봉사단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서당골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매일 아동센터를 찾아 영어, 수학 등 취약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지도에 열중하고 있다.

짬내 내 이들 아동들과 함께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은 물론 일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한전 직원과 아동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사랑'을 나누고 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낡은 콘센트, 전선, 플러그 등 노후 전기기기를 교체해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13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지역의 기초수급대상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농 상생 농촌사랑 운동도 활발

농촌사랑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농 상생을 모토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활동 등 농촌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1단지촌 자매결연 사업과 전력설비 부근에 위치한 농촌 마을 대상의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전기설비 보수·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년 1월1일에는 해맞이 명소를 찾아 시도민들에게 음료와 어묵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벌써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는 지역의 장애인 날 행사 및 체육 대회에 참가, 음식물을 제공하고 직접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빛과 소금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한전 대구·경북본부 조성훈 사회봉사단장은 “한전의 기업 이미지에 맞는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자료출처 : 영주시

영주 무섬마을

'선비의 고장'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무섬마을.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순수 우리말인 무섬마을엔 조선 후기 전통한옥이
마을을 350도 휘감아 도는 내성천과 넓은 모래사장, 외나무 다리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중소형 물량 중심 회복세 기대

실수요자 몰려 분양시장 '후끈'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들어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실적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파트 분양 실적 호조

신규 아파트 분양에 나선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실적을 토대로 볼 때 시장 전인차 역할은 단연 실수요자들이 물리고 있는 중소형대 물량이 그 중심에서 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분양 단지도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삼성이 분양한 달서구 감삼

동 '브리티시 용산'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10일 청약 3순위를 마감한 결과, 전용면적 46㎡(19평) 물량의 경우 총 1천196명이

접수해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 최근 민간 분양 물량이 거의 자취를 감춘 소형 평형대인데다 분양가격이 1억2천900만원으로 가격 메리트가 뛰어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분위기는 엇비슷해 보인다. 화성산업이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에 분양한 '범어숲 화성파크트립 S' 아파트 3순위 청약 접수 결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B의 경우 7.12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특히 오피스텔 물량에는 유례없는 청약률을 보여, 총 99실 분양에서 청약접수만 무려 5천399건을 기록, 5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142㎡(오피스하우스)와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도 각각 1순위와 3순위에 마감돼 화제를 모았다. 포스코건설이 대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분양한 '터샵 2차'에 대한 청약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도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청약접수 결과,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 11개동, 750가구 규모로 구성된 '이시아폴리스 터샵 2차'는 3순위까지 모두 1천327명이 청약을 끝내 평균 경쟁률 1.76대 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4.98㎡가 3.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물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순위 마감결과, 전용면적 96.59㎡와 116.27㎡도 각각 1.52대 1, 1.62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장기 부동산경기 침체에 빠진 대구에서 중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면서 "이를 토대로 볼 때 올 하반기 부동산경기는 조금

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조짐은 모텔하우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한 모텔하우스에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5월27일 공개한 포스코건설의 '더샵2차' 모텔하우스에는 오픈 3일간 1만3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 첫날에 3천500명이 방문한데 이어 둘째 날인 5월28일에는 모텔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한 긴 행렬까지 형성되는 등 진풍경을 연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삼정 브리티시 용산' 역시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 감소세 '확연'

지역 부동산시장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음은 통계 수치로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미분양아파트는 1만9천207호(전국의 23.8%)로 전달보다 866호 감소했다. 전달대비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도 지난해 11월 1만5천140호에서 12월 1만4천115호, 올 1월 1만3천908호, 2월 1만3천402호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파트 거래 역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월 -31.6%에서 2월에는 3.4% 플러스 신장세로 반전했다.

하반기 평형대별 명암 교차

올 하반기 지역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84㎡이하 중소형 물량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호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중소형 물량의 경우 최근까지 경기

부진 여파로 주택건설업체들이 물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면서 공급 부족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분양가격이 지난 2006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추세다. 전세난가중 속에 대기 전세 수요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용면적 85㎡이상의 중대형 물량에 대한 시장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비판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중소형 평형대와 달리 중대형 물량은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형 물량)을 하반기에도 분양 시장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 지원책 없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최근들어 유동성 위기 등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를 강화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자금경색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대출 금리마저 상승하면서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함께 주택건설업체 지원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욱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장은 "양도소득세 증과 완화를 재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건설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양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장경태 부동산전문기자





격식있는 시원함

“쿨비즈룩으로 패션니스타 되자”

직장인 여름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캐주얼룩 강화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에너지 절약 방편으로 도입된 쿨비즈(Coolbiz)룩이 직장인들의 여름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내·외 남성복 브랜드들은 이번 여름시즌을 겨냥해 주력제품으로 남방이나 티셔츠, 바지 차림새로 연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룩을 강화하고 있다. 올 여름 유행하고 있는 쿨비즈 룩 트렌드와 브랜드별 주력제품, 그리고 패션리더를 제안하는 코디법을 소개한다.

쿨비즈 운동은

쿨비즈(Coolbiz)는 '시원하다', '멋지다'는 뜻의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가 결합된 신조어다. 넥타이를 푼 간편한 옷차림을 통해 냉방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일본에서 시작된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대구백화점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6월1일부터 사무실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복장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백화점 직원들은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장차림 대신 셔츠, 면바지 등 캐주얼비즈니스 차림새로 근무하게 된다.

대구백화점 최영대 이사는 “이번 조치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는 물론 사무실 냉방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입어야하나

여름철 비즈니스 캐주얼은 무엇보다 입는 사람이 시원한 착용감을 느껴야하므로 가볍고 청량감이 우수한 소재를 선택하는 게 알맞다. 색상도 따져야하는데, 블레이저(재킷)의 경우 이번 여름시즌 네이비, 그레이, 블루톤이 강세를 띠고 있다.

비즈니스 캐주얼은 이와 함께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 직장 내 문화나 전체적인 분위기 등 주위 시선도 고려해 구입해야한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통상 밝은 컬러 의상으로 코디하면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살려줄 수 있다.

만약 쿨비즈 슈트를 착용할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기 때문에 셔츠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셔츠는 시원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블루 컬러를 많이 입는데, 오히려 화이트 계열의 밝은 컬러를 착용하면 밝고 화사한 이미

지를 한층 부각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재킷과 함께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의 셔츠를 함께 입으면 셔츠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시원한 느낌을 살려주는 화이트 팬츠로 코디를 해도 여름철 패셔너리로 거듭날 수 있다.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다면 깔끔한 드레스 셔츠를 고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이 경우 뒷목 밴드와 칼라(옷깃)가 일반적인 셔츠보다 약간 높을 게 알맞다. 칼라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숨겨진 버튼 스타일을 고르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넥타이를 매지 않는 대신 손수건으로 재킷에 포인트를 주면 격식 있는 자리에 손색없는 옷차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드레스 셔츠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보다 1인치 정도 큰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면 조금 타이트한

게 어울린다. 단추 깃 부분을 셔츠와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드레스 셔츠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화려함과 함께 세련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쿨비즈룩으로 오픈형 티셔츠를 선택하는 것도 무난해 보인다.

착용감이 드레스 셔츠보다 편안하고 칼라와 앞여밈이 셔츠 디자인으로 고안돼 여름철 비즈니스 캐주얼로 추천되고 있다.

만약 비즈니스 캐주얼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피케 셔츠를 장만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면·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셔츠는 시원하면서 외관과 손맛이 청량해 인기가 높다. 다만 단색 또는 심플한 패턴을 선택하되 너무 많은 색상의 조합은 삼가야 한다. 다소 격식을 차리고 싶다면 린넨 재킷도 알맞다.

바지는 슬림형 제격

바지는 몸에 잘 맞아 슬림해 보이는 게 제격이다. 고급스럽고 맵시가 나는 울 또는 면소재를 고르면 무난하고, 울 소재의 경우 모헤어 소재의 바지가 적당하다. 모헤어는 앙고라 산양에서 나온 털로 수분을 잘 흡수하고 몸에 잘 붙지 않아 여름철 바지 소재로 사랑받고 있다. 실크처럼 광택이 나면서도 촉감이 탄력적이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풍겨준다.

색상은 베이지, 그레이 컬러가 유행하고 있다.

출시 브랜드 다양

지역 유통시장에서도 쿨비즈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남성복 '로가디스'에서 출시한 '로가디스 3+'는 재킷, 바지, 셔츠로 구성된 세트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총 10여가지 연출법이 가능하도록 고안돼 쿨비즈룩 마니아들로부터 두터운 인지도를 얻고 있다. '캠브리지'가 내놓은 '썸머 블레이저'는 모헤어가 40% 가량 함유된 여름 블레이저로 출시되고 있다.

로열 블루 컬러를 적용해 캐주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강조해 주고, 금속 단추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미에스트로'는 원단 표면을 깎는 가먼트 워싱 가공을 통해 원단이 번들거리는 것을 제거하고 차분한 느낌을 살려주는 빈티지 재킷을 주력 아이템으로 내놓고 있다. 이밖에 '노튼', '행텐', 'NII' 등 영캐주얼 브랜드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세련되고 심플한 감각을 연출해주는 쿨비즈룩을 제안하고 있다.

대백프라자점 남성팀 박효진 팀장은 "쿨비즈 룩은 최근 의류뿐만 아니라 제화, 액세서리 등 다양한 패션 제품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쿨비즈 운동 확산에 따라 올 여름철 비즈니스 캐주얼 제품을 중심으로 남성복 매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하나 패션전문기자

달서구 소규모 동(洞) 통합

22개 동으로 재편
예산 절감·주민 서비스 향상 '한몫'



대구 달서구가 소규모 동(洞)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달서구는 지난 5월9일자로 성당1동과 성당2동을 성당동으로, 두류1동과 두류2동을 두류1·2동으로 각각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 통합 사례는 중구, 북구 등 동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는 대구의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달서구 동 통합 재점화

달서구는 이번에 성당1동과 성당2동을 성당동으로, 두류1동과 두류2동을 두류1·2동으로 각각 통합하면서 기존 24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재편됐다.

이번 동 통합은 달서구청이 지난해 11월 소규모 동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 1~2월 동 통합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3월2일 공포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기존 성당1동은 면적 1.24km²에 세대수 4천54가구, 주민 9천57명이 거주했으며, 성당2동은 면적 0.75km², 세대수와 주민수는 각각 6천586가구와 1만8천103명 규모였다. 성당1동과 성당2동이 통합되면서 성당동은 면적 1.99km²에 세대수와 주민은 각각 1만640가구, 2만7천160명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통합 청사는 성당2동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두류1동과 두류2동이 합쳐지면서 두류1·2동 역시 면적 1.33km², 세대수와 주민수는 각각 8천259가구와 1만8천994명으로 외형이 커졌다. 두류1동주민센터가 통합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여유청사인 성당1동과 두류2동 주민센터는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르신행복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달서구는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방안의 하나로 성당동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웰빙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행복문화센터의 경우 의사회와 한의사회 등 지역의 의료단체와 연계해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및 여과선용을 위해 교양·취미 강좌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

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단장할 방침이다. 달서구청은 이번 동 통합에 따라 연간 8억1천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달서구청 정천라 총무과장은 "달서구에는 현재 인구 4만에서 5만 여명에 달하는 거대동이 4개 동에 이른다"면서 "늘어나는 주민 욕구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만 이하의 소규모 동은 지속적으로 통합에 나서는 동시에 유휴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통합 움직임 활발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km² 미만의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북구 노원1·2동과 노원3동이 노원동으로 통합된 바 있다. 대구지역의 소규모 동통합 움직임은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가 최근 통합 동에 대해 청사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동당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동 통폐합을 유도하면서부터다.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지역의 동 주민센터는 134곳으로, 이 중 인구 2만명 미만 동은 92곳으로 파악된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중구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이 동인동으로, 북구 대현1동과 대현2동이 대현동으로 각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여유인력을 민원부서 등에 재배치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국〉

마늘은 '쑥' · 양파는 '뚝'

마늘재배면적 전년대비 14.8% 증가
양파는 10%이상 감소



웰빙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마늘과 양파는 의성, 영천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이 주산지다. 어느 정도로 많이 재배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지역의 마늘, 양파 재배면적은 전국의 15.5%와 11.0%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올해 지역의 마늘, 양파 재배면적의 변화 추이를 짚어본다.

마늘 재배면적 증가

올해 대구·경북의 마늘재배면적은 지난해의 3천248ha에 비해 14.8%(482ha)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국 마늘 재배면적(2만4천35ha)의 15.5%를 차지한 것이다. 전국의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2만2천414ha)보다 7.2%(1천621ha) 늘어난 2만4천35ha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재배면적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가격 강세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산 마늘 도매가격은 난지 상품 1kg 기준으로 5천359원을 기록해 전년인 2009년(2천357원)보다 무려 3천2원(127.4%)이나 치솟았다. 마늘의 10a당 소득은 2008년 114만6천원에서 2009년 120만2천원으로 보험권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31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64.3%나 급증한 바 있다. 지난해 마늘 가격이 이처럼 급증하자 파종기나 수확기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대표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 기대심리에 따라 생산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대

폭 늘린 것이다. 시·군별 재배면적은 의성이 1천495ha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천 919ha, 군위 288ha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시·군의 재배면적은 2천702ha로, 지역 전체면적의 72.4%를 차지했다.

양파재배면적은 감소

이와 달리 지역의 양파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양파재배면적은 지난해의 2천842ha에 비해 10.8%(308ha) 감소한 2천534ha에 그쳤다. 양파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벼, 고추 등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당 소득이 높고, 가격 안정세가 최근 몇 년간 지속돼왔지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가중되면서 생산농가에서 재배 면적을 줄인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 286ha, 청도 236ha, 영천 163ha, 의성 76ha 순으로 재배면적이 많았다.

상품 1kg기준으로 지난해 양파 도매가격은 933원으로, 전년보다 204원(28.0%) 오른 가격에 거래됐으며, 같은 기간 생산량은 2009년 19만5천74t에서 지난해 18만5천846t으로 9천228t(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이충학 과장은 "양파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마늘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늘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지강 통계전문기자



에너지 절약 작은 실천이 중요



권기정 한전 대구경북본부 전략경영팀장

최근들어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무더위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용수요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전은 올 여름 냉방전력 수요 예상치를 전년대비 12.3% 늘어난 1천729만k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전력수요의 23.1%를 차지하는 것이다. 최대 전력수요 역시 지난해보다 7% 증가한 7천477만kW를 기록, 전력예비율이 불과 5.6%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27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전력수급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다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새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환율 상승으로 회사경영 및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시기 에너지 절약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름철은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계절적 특성을 지닌다. 실제 무더위로 인한 여름철 냉방용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매년 하계 최대수요전력은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이런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 역시 매년 여름철마다 전력수요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공급설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이 때문에 국가는 최대수요전력과 적정 예비율을 감안하여 발전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통상 발전시설을 많이 지으면 전기 에너지는 풍족하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인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런 연유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전기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보다는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의 핵심은 단순한 소비절약이 아니라 소비효율 개선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절전을 통한 방법이다.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26~28℃) △TV시청 하루 1시간 줄이기 △냉장고 개폐횟수 1일 3회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은 전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 에너지소비효율 운동으로 꼽힌다.

여름철 사용량이 폭증하는 냉방시설도 마찬가지다. 여름철 전력소비의 주범인 에어컨의 경우 선풍기 30대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강·중·약 사용강도에 따라 단계별 30%의 절전효과가 있으며, 강 대신 약으로 강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종전 소비량의 60%를 아낄 수 있다. 최근들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주위 곳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가정에는 가계 생활비를 절약하고, 기업에는 비용 절감을,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거둬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를 맞아 각 경제주체마다 실천의지를 다잡았으면 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임을 자부합니다.

2001년 설립 이래(기획재정부 허가34호) 지난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3천여건의 학술연구와 원가계산,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공익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인력현황

- 해당 분야별 석·박사 30명
- 원가분석사 10여명
-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다수 보유

법적자격현황

- 기획재정부 인가 학술연구기관
- 국가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기관
- 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기관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행정안전부 고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 중소기업법에 의한 경영진단기관
-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www.kepi.or.kr



재단 한국경제기획연구원

본 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 053)766-0038 / F. 053)766-0379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8. 27~9. 4 대구스타디움 www.daegu2011.org



대한민국 대구에서 전세계 65억 인구의 감동이 시작됩니다!

● 입장권 구매(예매)처 ●

- 인터넷 : 인터파크(sports.interpark.com/1544-1555), 조직위(www.daegu2011.org/053-803-9264)
- 직접 판매처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 대구시청 및 구·군청 민원실, GS25편의점(ATM기 설치업소)

● 입장권 가격

(단위 : 원)

구 분	프리미어		A석	B석	C석	비 고
	F석	S석				
개회식 입장권	150,000	120,000	50,000	40,000	20,000	첫날 저녁경기 포함
오전 입장권	30,000	30,000	20,000	10,000	-	
저녁 입장권	100,000	80,000	40,000	20,000	-	
일일 입장권	125,000	105,000	55,000	25,000	-	
시즌 입장권	850,000	700,000	300,000	200,000	-	전경기 입장

※ 어린이(12세이하) 30%, 장애·경로·국가유공자 50%, 단체(50명이상) 30% 할인, 꿈나무 및 대학생 프로그램(초·중·고, 대학교)참여학교는 별도할인 단, 개회식, 프리미어석, 시즌석 입장권은 할인 되지 않으며, 중복할인 불가

● 입장권 좌석 배치도



구 분	좌석등급
(Yellow)	VVIP석, VIP석
(Orange)	미디어석, 선수석
(Blue)	프리미어 F석, S석
(Green)	A석
(Light Green)	B석
(Pink)	C석

F : 결승선 S : 출발선 * C석은 개회식에만 해당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